

本草問答

裴 馨 道



▶ 問 - 藥에 있어서 根이나, 苗, 首, 尾, 節, 芽, 刺, 皮, 心, 汁, 筋, 瓢이 그 用藥이 다른 것을 자세히 言及해 주기 바란다

• 答 - 이것은 다른데 意味가 잇는 것이 아니고 단지 藥力이 많이 모여 잇는 곳을 取하므로써 疾病에 맞추어 效果가 나도록 할 뿐인 것이다.

例를 들면 麻黃은 반드시 苗를 쓰도록 되어잇는데 가늘고 속이 비어 있어서 毛孔의 形象을 하고 氣가 또한 輕揚하므로 發汗의 能力이 있으며 藥力이 皮毛로 바로 가게 된다. 또 麻黃을 根을 쓰는 경우도 잇는데 그것은 根이 堅實하고 味가 澁하므로 止汗하는 能力이 잇으니, 苗는 空間이 있어서 通하며, 根은 속이 채워져 있으므로 막혀서 通하지 않는 것이 또한 陰陽通塞의 互換되는 理致가 잇는 것이다.

常山은 苗를 쓰는데 上部의 膜膈을 透過하는 能力을 取하여 痰을 이끌어 上出하도록 하며 商陸은 根을 쓰는데 內部로 膜膈을 透過하는 能力을 取하므로써 물을 끌어 下行시키는 것이니, 苗를 쓰는 것은 上升하는 作用을 取하고 根을 쓰는 것은 下降하는 作用을 取한 것이다.

升降의 쓰임이 다른 것이 또한 各各 그 部位의 種類에 따른 것이다. 當歸가 首와 尾를 區別하여 使用하는 경우가 잇으니 首의 性質은 升하므로 生血을 爲主하고 尾의 性質은 降하므로 行血을 爲主하는 것이다. 地榆도 首尾를 區別하여 使用하는 경우에 首의 氣味는 厚하므로 行血의 힘이 더 強하고 尾는 藥味가 薄하여 行血의 힘이 首에 비하여 弱하다. 마디를 쓰는 것에 松節이 잇는데 사람의 骨節을 治療하고 牛膝은 마디가 무릎과 같아서 膝脛을 이롭게

할 수가 있으니 그 形象이 같으므로서 이다

藕節은 가운데가 비어있어 通하니 行水에 能하므로 血分의 濕熱을 行하게 하는데 쓰이므로 痰血을 맑게 한다. 藕는 물속에 있고 마디 또한 극히 가늘게 結束되어 잘록하니 그 가운데로 能히 水를 통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淋症을 치료하는데 더욱 좋다. 淋症은 곧 물이 구멍으로 通해야 할 것이 通하지 않는 것이며 藕節은 물속에 있어 通해서는 안되는 것이 通하는 것이다. 또 紫色을 紅色으로 變하게 할 수 있으니 血分에 入하므로써 淋症을 치료하는데 더더욱 積중된다고 할 수 있다

싸을 사용하는 것은 그 發洩하는 性質을 取하는데 보리같은 것은 본디 疏利하는 것이 아닌데 싸이 나면 氣가 透達하게 되므로 水穀을 疎泄하므로써 肝氣를 利하게 하는 것이다. 穀은 본디 滯한 것을 行하는 能力이 없는데 싸이 나므로 인하여 糞을 헤칠 수 있는 것이므로 米穀을 消化시키는 것이다 黃豆가 싸이 나면 脾胃의 氣를 升達시킬 수 있으므로 仲景의 薯蕷丸에 사용하여 補脾하도록 하는 것이다. 赤小豆를 發芽시키면 膿血을 透達시킬 수 있으므로 仲景의 赤小豆當歸散에 사용하여 排膿하는 것이다.

가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니 攻破하고 降利하는 것이 그것이다. 皂刺와 白棗刺(땃대추나무가시)의 쓰임이 이런 것인데 두가지 모두 가시가 뽕족하고 길므로 攻破를 爲主하는 것이다 가시가 있더라도 뽕족하지 않고 뉘시처럼 구부러져 있거나, 가시가 길지 않고 가늘고 부드러운 것은 攻破降利의 效라기 보다는 和解과 消散을 主로 하여 息風治筋하는 能力이 있으니 釣鉤藤刺나 紅毛五加皮, 白蒺藜같은 것들이다 대개 구부러진 가시나 까스라기는 風木의 神이 되는 것이므로 구부러진 가시나 까스라기가 생기는 植物은 모두 肝木을 和解하므로써 息風治筋하는 것이다.

껍질을 藥으로 쓰는 것은 껍질로써 皮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生薑皮와 茯苓皮, 橘皮, 桑皮, 檳榔皮 등은 皮腫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며 가운데 心을 쓰는 것은 心으로 心의 病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桂心은 心氣를 따듯히 해주고 茯神木은 心神을 安定시키는데 쓰고 蓮子心은 心火

를 맑게 하는데 쓰며 竹葉心 또한 淸心火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가운데 心이 心으로 歸入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汁液을 藥用하는 경우에는 사람 몸 속의 물을 形象한 것으로 薑汁이나 竹瀝같은 것이 있는데 痰飲을 제거하는 것이니 같은 형태인 물을 따라 치료가 되는 것이며, 사람 몸 속에 血液을 形象한 것으로는 藕汁이나 桃膠같은 것으로 瘀血을 맑게 하니 같은 형태인 血液을 따라 치료가 되는 것이다.

筋을 藥用하는 續斷같은 경우는 筋이 많으므로 찢어지고 傷한 것을 아물게 하고 蓼芩는 絡의 무늬가 좌우로 엮혀 있으므로 左右偏風과 筋脈의 疼痛症을 치료하는 것이다. 杜仲은 속에 筋膜이 있는데 사람도 뼈가 筋에 연결되고 筋은 膜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杜沖의 筋膜은 伸縮이 가능하고 아주 질기므로 사람의 筋骨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竹茹도 筋脈의 형상이므로 脈絡의 熱을 淸解하여 和血하고 橘絡과 瓜萋도 胸膈間에 있는 結氣의 治療가 가능한데 橘의 筋絡이나 瓜萋의 膜瓢이 사람 가슴 속의 膜膈과 類似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橘皮와 大腹皮가 둥글고 黃色인 것이 腹部와 모양이 類似하여 두가지가 모두 大腹의 氣를 다스리는 것인데 作用이 조금씩 다른 것은 氣味에 차이가 있으므로 臟腑의 歸經도 달라서 主治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例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 잘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 問 - 仲景의 用藥法에 十枚 또는 十四開, 三枚, 五枝等과 같이 分量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이 갯수 等を 채용한 것도 마땅히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本草에서도 숫자를 취하여 命名하는 경우가 있다. 三七根, 三稜, 八角回香, 六神糲, 五加皮, 兩頭尖같은 藥이 그것인데 藥이름에 이미 숫자가 쓰였으니 治病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설해 주기 바란다

• 答 - 天地間에 있는 萬物이 氣와 數 이 두가지 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니, 실제로 數는 氣에서 나왔으니 氣가 많은 것은 數도 많고 氣가 적은 것은 數도 적은 것이다. 氣를 먼저 得한 것은 앞 숫자가 되고 나중에 氣를 得한 것은 숫자도 다음이 되는 것이므로 水는 生於天하여 一이 되고 火는 生於地

■ 本草問答

하여 그가 된 것이며 陽氣를 얻으면 數도 홀수가 되고 陰氣를 얻으면 짝수가 되는 것이므로 河圖五行의 數가 상호작용하여 生數와 成數가 된 것이니 그 숫자를 알면 그 氣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用藥하는데 있어서는 十枚니 十四開니 五枚니 一枚니 하는 것도 藥材分量의 많고 적음에 불과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그 劑製의 완전함을 위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藥性的 造化를 완성함에 있을 뿐이다. 이 天地의 生數와 成數로 三稜, 三七根, 八角茴香, 五加皮같은 藥들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포함하고 있는 氣의 陰陽에 따라 奇數와 偶數가 되는 것이니 藥性이 나누어지는 것도 숫자의 奇偶에 根本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니 이로써 藥의 陰陽을 定하는 것이다.

숫자가 病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그 숫자를 가지고 藥의 主治를 알게 되는 것이다. 三七根의 實은 三이 아니고 七인데 어찌된 연고일까? 그것은 木의 氣를 가졌으니 숫자가 三인 것이며 火의 氣를 가지고 있으니 七이 되어 河圖의 木火의 數와 相合이 되며 사람에게 있어서 木火의 臟은 肝과 心으로 血을 司領하게 하는 것이다. 三七根은 實은 青色에 붉은 줄이 있으니 또한 木火의 色이요, 그러므로 三七根은 化瘀行血하는 능력이 있으니 확실히 心火는 生血하고 肝木은 統血하게 할 뿐이니 三七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성질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三稜은 색깔이 白色이며 氣味는 苦溫하여 行氣하는데 여러 本草書에 모두가 血中の 氣를 破하는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三稜의 苗葉이나 뿌리가 모두 세모의 모양을 하고 있다. 三은 木의 數이니 肝經血分에 入하고 色은 白이니 氣에 屬하고 氣味가 苦溫하여 行氣를 위주하므로 破氣가 能하여 血中行氣의 品目이 되는 것이다.

八角茴香은 氣가 溫하고 木氣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八이 木의 數이기 때문이다. 八角香이 溫中하는 功能이 있어서 木으로 疏土하여 木剋土가 되는데 木邪가 물러가면 土는 자연히 편안하게 되어 이익이 되므로 補土溫肝의 藥이 되어 약을 쓸 때에 氣가 香溫한 八角香을 加하여 胃氣를 달래는 것이다.

六神糶은 四方(辰戌丑未)의 色을 띠고 여섯가지 藥을 合하여 發효되면 神糶이 되어 土가 能히 化物한다는 뜻이 있다.

土는 四方에서 旺하고 四方은 中央土로 歸合되므로 여섯가지 藥材가 發효하여 神糶이 되어 오로지 脾胃에 入하고 水穀을 消化시키는 것이다. 兩頭尖은 雄鼠屎인데 쥐는 답장에 구멍을 내는 性品을 가지고 있어 糞便의 양쪽이 洩족하여 功利의 性質을 가지게 되므로 攻破를 爲主하게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숫자로써 그 氣運이 확실하게 밝혀지므로 主治도 자연히 誤診이 없는 것이다. 또 人蔘 한가지를 보면 張景岳은 陽藥이라 하고 陳修園은 陰藥이라 하는데 陽藥이라 하는 경우는 益氣하기 때문이라 하고 陰藥이라 하는 경우는 生津하기 때문이라 한다. 두사람의 論理가 다른 것은 人蔘의 氣와 數를 나누어 생각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친구 姚次梧는 遼東에 직접 가서 人蔘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人蔘은 모두 숲 깊은 곳의 濕潤한 곳에 재배하는 것을 보고 水陰의 氣를 받고 자라니 당연히 生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줄기는 세개로 나누어지고 잎은 다섯으로 나누어 졌으므로 三과 五는 陽數라, 氣와 數를 合하여 말하면 人蔘은 陰에서 자라서 陽을 完成하는 것을 알게 된다. 濕潤한 깊은 숲속은 陰이요 人蔘 한그루가 一에서 生하여(一은 水의 生數) 三과 五로 氣가 완성되니 陽인 것이다.

사람의 氣는 陽으로 腎水中에서 나오는데 즉 陰속에서 陽이 나오는 것이 人蔘이 陰에서 生長하여 陽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人蔘이 生津補氣하는 聖藥이 되는 것이다. 보통 數로써 氣를 알 수 있는즉 人蔘의 本性을 보면 色은 白色이어서 入肺하고 味는 甘味여서 入脾하며 微苦는 生津하고 微溫은 益氣하니 이런 설명은 오히려 초보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 問 - 神農이 經書속에 金石으로부터 禽獸昆蟲까지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本草라고 命名한 것인가.

• 答 - 收錄된 藥種이 草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本草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그러나 草木이 비록 五行을 갖추고 있다하나 甲乙의 木氣를 가진 것이 많

■ 本草問答

아서 사람의 五臟六腑에 다 맞추어 줄 수 없으므로 金石昆蟲같은 것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禽獸의 血肉은 사람의 그것과 가까우므로 滋補하는 능력이 크고 草木, 昆蟲, 金石과 같은 것에 比하여 功效가 더욱 좋기 때문이다.

草木은 植物이며 昆蟲은 動物인데 動物의 攻利가 植物보다 尤甚하다. 이것은 動物의 本性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攻利性을 가지고 있는데 본디 움직이지 못하는 植物에 비하여 그 攻利性이 강한 것이다. 鼈甲은 肝氣를 攻破하고 癥瘕를 去하며 穿山甲은 性品이 山을 뚫을 수 있다 하는데 땅속에 살므로 瘡膿을 공격하여 破하며 또 堅積을 공격하여 사라지게 한다.

水蛭은 가늘어서 좁은 곳을 잘 기어 들어가고 피를 빨 수 있으므로 주로 血積을 攻破한다. 蟲蟲은 날아 다니는 것으로 피를 빨아 먹으므로 上下의 血을 行하게 한다.

동물은 모두 피와 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血分으로 入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상에 열거한 藥들이 모두 攻血을 爲主하는 것이다. 오직 穿山甲만이 金水의 性質을 얻어서 氣分으로 들어가 攻破하는 능력을 겸하고 있을 뿐이다.

動物이나 植物된 藥의 性質이 모두 鎮靜의 性品이 아닌데 金石의 藥은 본디 鎮靜의 性品을 가진 것이라 精神과 魂魄을 安靜시키고 填塞鎮降하니 또한 金石이 要藥이 되는 것이다.

金箔이 能히 心神을 鎮靜시킬 수 있는데 心神이 浮動하면 肺氣의 힘을 빌려서 거두어 들여 靜止하게 하므로 內徑에서 肺를 相傳之官이라 하여 心君火를 肺가 宰相(尙書)처럼 돕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黃金이 본디 肺金의 氣로서 心神을 鎮靜시키는데 이것은 宰相이 임금을 慰安하여 鎮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硃砂가 心神을 鎮補하는 것은 心으로 直接 歸入하여 心을 填補하는 것이다 龍骨 또한 무거워서 陽氣를 가라앉게 할 수 있으므로 心神을 鎮靜시킬 수 있으며 白銀도 定驚의 能力이 있어 小兒의 驚風에 쓰이고 孕婦의 胎動에도 많이 쓰이는 것이다. 이로써 肺金이 肝木을 平定하고 무거운 것으로써 浮動하는 것을 制壓하여 鎮靜하도록 하는 것이다.

赤石脂와 禹餘糧은 石中에서 나는 흙으로 濇性을 가지고 있어서 腸胃를 填

漚하고 銅은 石中의 液으로 赤色을 띠고 있어서 血을 象徵하므로 能히 血分에 入하고 性品이 단단한 것이라도 녹여 여러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筋骨을 接續시킬 수 있으니 부러진 뼈를 이어주는 약이 되는 것이다. 自然銅은 불이 있으면 금방 녹으므로 血分에 入하여 뼈를 이어 주니 더욱 뛰어난 약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草木昆蟲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새나 짐승의 血肉은 사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補益하는데 아주 좋은데 猪肉은 性이 平하여 常食하는데 신체를 潤澤하게 하는 功이 있어 燥性을 滋潤하는데 아주 좋고 牛肉은 性이 溫하여 補脾胃하는데 能하고, 오리는 金水의 性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기가 肺를 滋養하는데 能하고, 닭은 木火의 性을 가져서 그 고기가 溫肝하는데 能하며, 羊肉은 노린내가 나므로 溫肝하고 특히 羊肝은 入肝하여 結氣를 풀어준다. 猪肝도 마찬가지로 入肝하여 結氣를 풀어주나 性이 羊肝에 比하여 더 平하다.

돼지는 水에 屬하는 家畜으로 水生木하므로 눈병을 다스리는데 能하다. 猪腎은 入腎하고 脊髓는 入髓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종류를 따라 같은데로 따라가는 것이다.

돼지의 油綱이 사람의 油綱과 같이 생겼으므로 거기에 胰子油가 또한 潤澤한 기름이라 油膜에 歸入하므로 그런 引導하는 작용을 써서 油膜의 疾病을 治療하면서 아울러 膈食腸枯의 疾病을 다스리므로 仲景方의 猪膏髮煎이 燥屎를 다스리는 것이 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猪膚는 猪項皮인데 仲景先生이 그것으로 咽痛을 다스린 것 역시 목으로 歸引하는 것을 取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짐승 가운데서도 사슴의 靈驗함이 奇異한데 사슴은 자면서 머리를 꼬리로 향하므로써 督脈이 通할 수 있도록 하는데 督脈은 腎脈으로 坎中一陽의 主脈이다. 사슴은 北方에서 살면서 坎中一陽之氣를 가지고 있으므로 督脈이 旺盛하여 脊髓와 腦髓가 아주 豐足하므로 이 豐足한 腦脊髓가 上部로 피어 올라가서 뿔이 된다.

一年에 一回씩 換角하는데 어린 뿔이 鹿茸이니 茸의 精氣는 極히 豐足하여

■ 本草問答

補髓, 强精, 壯陽, 益血하는 聖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性質이 上行하므로 血逆火逆하는 경우는 맞지 않으며 오직 血虛火弱하거나 陽不舉, 氣不上升하는 경우는 사용하기에 마땅한 것이다

鹿胎는 元氣가 渾然하여 下焦로 가고 上行하지 않으므로 種子益腎하고 胞宮을 補하는 妙藥이 되는 것이다. 거북의 性質은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니 精이 板에 있어서 任脈이 通할 수 있게 하는데 任脈은 離中之陰이 되어 밑으로 내려가 督脈과 만나서 既濟의 象을 이루므로 龜板은 益陰하여 心腎을 滋養하므로 鹿茸과는 확실히 對照가 되는 것이다. 虎骨은 猛烈한 힘이 있어 筋骨을 强하게 하는 것이다 호랑이는 바람을 생기게 하니,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므로 虎骨은 中風이나 風痛을 다스리는 약이 되는 것이다.

짐승은 食用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 功效는 뛰어난 것이다 무릇 이러한 金石禽獸의 여러 物品이 草木의 不足한 點을 도와 치료에 쓸 수 있으므로 本草와 兼하여 使用하는 것이다

(학술위원 순천시 남정동 61-2 화생당한약방 ☎ 061-745-0787)